

# 대학의 敎養敎育과 專攻敎育

— 실패한 實驗大學의 敎育실험 —

成 賢 慶

(西江大 國語國文學科)

우리나라의 실정을 외면한 채 西歐 先進國 大學들의 敎育을 모범로 삼아 그것음 이 땅의 대학들에 이식하려는 무모한 짓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敎養敎育을 강조하다가 그만 專攻敎育을 소홀히 하여, 우리가 죽도 밥도 아닌 敎育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 1. 머리말

광복 이후 4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敎育 방향은 대체로 두 번의 큰 변천이 있었다. 일제의 대학敎育 방식을 답습하다가 미국의 대학敎育 방식으로 일부 전환한 것이 그 하나요, 이른바 실험대학의 운영 이후 이 방식으로 다시 교착시킨 것이 그 다른 하나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두번제의 변천 역시 미국식 대학敎育 방식으로 한 걸음 더 옮겨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공 위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초기—1950년대까지—의 대학敎育은 점차 전공을 출이고 교양을 가미 내지 늘리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구미, 특히 미국을 모델로 하여 敎育학을 공부한 분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敎育 풍토나 환경 등의 제

반 더건은 실상 미국의 그것과 꼭 같지가 않다. 아니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현격히 다르다고 표현해야 옳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敎育의 개혁을 주도한 이들의 이론 내지는 그 이론적 배경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아울러 점검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敎育 방향에 대한 개선책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대학敎育의 理想과 現實

### 1) 교양敎育 강화의 배경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분화와 더불어 대학은 직업학교적 성격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대학敎育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공敎育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敎育학자들은 이를 대학의 타락으로 보고 곧 그 반성으로서 교양과목의 敎育을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교양敎育이 다시 점차 강화되었다.

전공 위주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을 대학의 타락으로 보는 것은 대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全人的 인체의 양성에 있다고 보는 데서 연유한다. 즉 대학은 대학생들르 하여금 현대사회를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조망하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뉴만(Henry Newman)은 그의 유명한 논문 「대학의 이념」에서 “대학은 보편적 지식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대학의 목적은 도덕적 감화권 주거나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직업용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지적 교양을 전수하는 데 있다. 그런 만큼, 대학은 학생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후의 작용을 충족히 발휘하여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의 지능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만은 보편적 지식에 대한 전수의 결과로서 도달되는 상태를 정신의 확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창조적 구성능력으로서의 상상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는 이렇게 교육된 사람만이 마침내 광명한 지성을 소유하게 되고, 지식의 넓은 분야의 어느 한 부분을 볼 때에도 그것이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또 그러한 인식에서 발생하는 연상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을 교양적 지식 혹은 인문적 지식(liberal knowledge)이라 일컬고, 이와 같은 지식의 전수 방법을 교양교육 내지는 인문교육(liberal education)이라고 일컫는다.

그런가 하면, 하밀튼(W. Hamilton)은 “교양교육은 개인이 어떤 외부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목적 자체로서 부여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직업인으로서의 상대적인 재주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절대적인 완성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교육이다”라고 정의한다.

한편, 대학에 있어서의 교양교육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개발한 뿐 아니라, 인접학문 분야와의 맥락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상호 유기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전공과목의 기초를 확립하며, 동시에 총체적 안목을 길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초교육·소양교육을 뜻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이 한편으로 ‘교육을 받은 일반 교양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이른바 ‘교양교육의 바탕’이어야 한다는 점은 어찌던 당위론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점을 굳이 부인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시 대학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교육을 받은 전문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어느 정도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전공교육의 바탕’이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또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이들 양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특별히 강조하고 강화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머지 한 쪽이 약화되기에 이른다 고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 대학교육의 고민

대학이 직업학교로서의 타락을 막고, 또 그 교육이 전공교육 일변도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마침내 교양에 속하는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이수케 하기에 이르렀으나, 대학은 다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오늘날의 대학이 안고 있는 고민은 갖가지의 강의권 백화점식으로 멀리어 놓고 여러 종류의 지식을 조금씩 그리고 얇게 대학생들에게 맛보이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데 있다. 만물 박사 같은 박사기나 떠벌이 야담가가 반드시 교양인일 수만은 없는 것처럼 교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결코 지식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모든 대학들이 공동적으로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은 현대사회의 추세로부터 기인한다. 현대사회는 전문화·세분화·다양화된 지향하고 또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외면할 수 없고, 또 그러자면 자연히 대학생들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은 습득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교양교육보다는 전공교육에 더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에 있어서 그 강조점을 교양교육에

둘 것인가, 전공교육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설상직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대학교육의 방향은 전혀 다른 길을 치달게 될 것이다.

대학의 第一義的 사명이 지식의 상상적 전수에 있다고 본다면, 대학교육은 직업교육을 넘어서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이 단순한 직업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전공교육이 곧 직업교육은 아니며, 또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전공교육을 직업교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방향에서 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공교육을 통해서도 교양적 지식은 얼마든지 전수될 수 있다고 본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물론 교양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특수한 종류의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식을 소화함으로써 넓어지는 인간의 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별문제이겠지만, 그것은 지능의 힘과 착실성과 종합성 및 남들이 자기의 앞에 나타난 때에 그들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판단력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일부 자연과학 분야 같은 특수한 분야의 전공학과들은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령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계통의 분야—의 전공학과들은 전공교육의 과정에서도 그것의 전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필자는 본다.

### 3. 韓國 대학교육의 문제점

#### 1) 교양교육의 문제점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서는 이들은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과목 위주로 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학생들이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여러 원리를 상호 관련 속에서 연계시켜 이해할 수 없다고 내세운다. 이들은 대학의 교육목표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자유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육은 전공교육과 더불어 대학생 자신의 인생 문제 및 사회와 자연을 연관시켜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편 대학에서의 교육은 全人的 知性人의 배출을 그 목표로 한다고 보고, 자기 전공영역 이외의 주변 학문의 동향도 파악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의 여러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이 교양적 지성인 내지 전인적 지성인의 육성을 강조하고, 이와 같은 교육을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던 당연한 '理想的' 지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교양교육)만을 강조하는 권파적 주장(권견)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또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에 미무르는 주장일 수도 있다.

실제 이와 같은 이상만을 지향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우리의 대학이 사회의 다양화·세분화·전문화 추세에 맞닥처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면, 문제는 실로 복잡·미묘해진다. 우리는 결국 전공교육과 교양교육간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수밖에 없은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이상적일 수는 있어도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백화점식으로 여러 상품(과목)을 전열해 놓고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임의로 고르도록 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에도 속하지 못하고, 몇몇 교과목만을 나열한 채 주로 나이 어린 시간강사들이 담당하면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룬 수강토록 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따라서, 교양강의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이나 따서 졸업의 자격 요건이나 갖추는 데 필요한 요식행위로 간주하고는 억지로 참여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우리의 처지에서 볼 때, 선진국에 속하는 구미 대학들의 교육을 이상적인 본보기로 삼으면서 그것을 지수입하여 이 땅의 대학교육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일부 교육학자 내지 대학교육 정책 입안자들의 태도는 여러 모로 제고될 요한다고 본다. 대학의 시선이나 교수학보 면에서 선진국

과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 각 대학의 현재 여건들을 무시한 채 펼치는 제반 대학교육론은 탁상공론 내지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 있다.

## 2) 전공교육의 문제점

대학의 교양교육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친 대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대학의 학문에 눈을 뜨게 하고 급없는 미지의 세계로 몰입하도록 지적인 자극을 부단히 줄 수 없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차라리 이 교양과정의 교육에 할당하는 시간을 전공과정의 교육에 돌려 비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 안목을 기르고 다양한 방법론들을 터득하게 하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기실 광복 직후 우리나라 대학들은 한때 학생들로 하여금 4년 동안 180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룬 거의 전공이수로 충당케 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을 160학점으로 조정하면서 교양과목을 대폭 늘리고 전공과목을 줄여 전공이수율 80학점 정도로 조절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로 접어들어 이른바 '실험대학'을 운영하면서, 문교부는 다시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을 140학점으로 인하하고, 전공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전공과목의 경우 45학점 안팎만 따던 될 수 있게 '개선' (?) 하였고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대학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실험'을 '성공'으로 평가하고, 이 실험안을 전국의 대학들로 하여금 받아들일도록 권장 내지 증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마당에 서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성을 느낀다. 대학교육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이 과연 여전히 '개선'일 수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볼 때, 이는 진실로 개선인가 계약인가?

필자가 알기로는 이 같은 실험대학안은 바로 본인이 속해 있는 서강대학교에서 제창하고 또 맨 먼저 실험했다. 따라서, 필자가 이문 거론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한편 생각을 달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문 거론해도 좋은 위치에 있지

않는가도 여겨진다.

실험대학안은 본래 미국의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미국인 교육학박사가 본교의 교수직 및 교무처장직을 맡으면서 오랫동안 연구·검토한 끝에 내놓은 안이었다. 이 안이 제출되고 시행되던 당시의 본교는 교내의 시설이나 교수 배 학생의 구성비 등 제반 여건 면에서 미국 안에 있는 대학교들의 그것과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어찌면 이와 같은 실험대학안이 가장 합리적인 교육 방안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실험대학안이 실시·운영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학교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의 제반 여건은 급격히 달라졌다. 갑작스런 문교정책의 변화—고급인력 양식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들은 쏠지에 한 쪽으로만 비대해지게 되었다.

가령 우리 서강대학교의 경우, 현재의 학생수는 이 같은 실험대학안이 구상되던 당시에 견주어 무려 10배에 가깝게 늘어났고, 교수 증가율은 학생 증가율에 훨씬 밀려나 교수 배 학생의 구성비가 1대 25 정도에 머물게 되었다. 여느 대학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사정은 본교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대학의 교육은 워니워니 해도 학과인·전공별로 이루어진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런데, 쟁가 갑자기 비대해지고 보니 교수들이 자신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들의 개별적 신상 파악은 고사하고, 얼줄이나 이름을 함께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전공을 40~50 학점—3학점 짜리 15과목 정도—만 이수하면 졸업요건을 갖추는 마당인지라, 심지어 어떤 교수는 강차시간을 통해서 자기학의 학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쏠無한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교수와 학생—이 상호 자주 접촉하는 가운데서 가능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이론도 이상안도 필요치가 않다. 전인적 인제도, 교양적 지성인도 학생들 자신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교수들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교접하는 데서 걸려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에 대한 제반 지도는 무엇보다도 강좌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던, 오늘날의 우리들 대학의 사정은 실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안의 대학 실정이 이와 같은데 차라리 예전처럼 전공 과목을 80학점 정도 이수케 하여 전공과목만이라도 보다 더 똑똑히 가르침으로써, 죽정이 아닌 영근 전문인·지성인을 배출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교육상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맺는 말

우리나라의 실정을 외면한 채, 털어 놓고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1대 10 정도거나 그 이내인 서구 선진국의 대학들의 교육을 모델로 삼아 그 교육 방식을 이 땅의 대학들에 이식하려는 무모한 짓은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양교육을 강조하다가 그만 전공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가 죽도 밥도 아닌 죽밥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혀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대학 4년을 마치고 나서도 자신의 전공영역에 대해서조차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어설픈 지식

인·전문인을 길러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 전공교육을 잠깐 한다면 교양을 갖춘 지성인은 얼마든지 길러 낼 수 있는 것은 아닌까? 전공과목 위주로 공부했던 예전의 대학 졸업생들은 과연 전공과목만 배우고 교양과목을 제대로 못 배워 모두 죽정이 지식인 내지 지성인들이 되고 말았다고 보는가?

대학생들의 교육 내지 지도에 관한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실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대학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이 비로소 그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없이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필자는 예전의 대학교육 제도가 차라리 이 땅의 풍토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며 이전처럼 다시 전공교육을 강화한 것을 주장하고 제안한다. 신입생들에 대한 선발권도 예전처럼 각 대학에 온전히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행해지지 않도록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